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21일, 6월 후원미사는 18일, 7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733,865	전월이월금	2,453,546
지 로	2,356,585	우리은행	2,720,780
국민은행	5,303,000	하나은행	1,021,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075,000
외환은행	287,500	제일은행	180,000
농 협	1,285,000	기업은행	375,000
우 체 국	35,000	교구보조	1,541,278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3,45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6,275,000	잔액(이월금)	2,453,689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8. 4 / 제22호

펴낸날 2018. 4.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제104차 이민의 날 담화문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황님의 이민의 날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전하며 우리의 현실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공동체는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민과 난민에 대해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환대는 인간 중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며 이주민에 대한 환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주 사목을 하는 이주민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만으로도 머나먼 땅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기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사관의 적절한 지원, 언제라도 신분증을 직접 소지할 권리, 공정한 사법 접근권, 개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저 생계비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은 미성년 이민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이민은 이민자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억류에서도 제외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질 보편적 권리가 인정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때 마땅히 국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진하기는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 "노동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과 난민을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하고, 모든 이에게 고용, 언어 교육, 시민권, 그리고 모국어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을 교황님께서서는 격려하십니다.



마지막 동사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 상호 필요성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통합의 과정은 재정적 또는 언어적 요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도착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이민에게 특별히 합법화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정상 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적 차원의 책임을 공유하여, 이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행동을 결행하려는 바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2018년 말 이전까지 두 가지, 곧 난민과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교구 이주민 사목 단체들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에서 마련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행동 지침을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이민과 난민의 희망과, 또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열망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미로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번 담화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

*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의 2000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는 해마다 '해외 원조 주일의 전(前) 주일을 '이민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이 이민의 날을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이민의 날」 은 4월 29일(부활 제5주일)입니다.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이민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10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27일(일) 오전 11시에 동성고등학교 강당과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부 국가별 공연을 시작으로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 제3부 파견미사(염수정 추기경님 주례)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공동체 성삼일과 부활미사 소식*

가톨릭 국가 필리핀에는 국가적으로 두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부활절)입니다. 필리핀공동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수난의 행군을 재연하는 패션오브크라이스트 공연을 주님수난성지주일(해동동거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삼일 예절로 주님만찬 성목요일, 주님께서 겸손과 봉사, 애덕을 가르치시고자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에서 비롯된 세족례를 시작으로, 주님 수난 성금요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의 수난과 돌아가시고 묻히심을 묵상 하면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부활대축일 성야미사,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다시 새기며 필리핀 많은 신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주님수난성지주일



▲ 패션오브크라이스트 공연 ▲



▲ 성목요일



▲ 성금요일



▲ 부활대축일 성야미사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연극관람



▲ 입학식



▲ 소방교육